

채소값 급등·가공식품 줄인상... 식탁물가 초비상

당근 4.8배, 양파 2.5배, 배 2배 올라 밀가루·장류·술·김치값 인상 도미노

정월대보름(24일)을 앞두고 식탁 물가가 들쭉이 있다. 당근, 양파 등 채소값이 폭등한데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 제조업체들까지 줄줄이 식품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 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광주지역 당근(20kg) 도매가격은 10만원으로 1년 전 2만

1000원보다 무려 4.8배 폭등했다. 주산지인 제주도에서 지난해 태풍과 겨울 냉해로 인해 출하량이 평년 대비 70% 이상 급감했기 때문이다.

양파(1kg)도 1800원으로 1년 전 700원보다 2.5배 이상 올랐다.

설명점이 있지만 과일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사과(후지·15kg) 도매가격은 한 달 전 6만5000원에서 23% 오른 8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1년 전 4만원에 거래됐던 배(신고·)는 7만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다.

이와함께 밀가루, 장류, 주류 등 주요 식품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확산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삼양사는 20일 부터 밀가루 전 품목의 가격을 평균 8~9%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CJ제일제당(8.8%), 동아원(8.7%), 대한제분(8.6%)에 이어 삼양사 마저 가격을 올리면서 주요 밀가루 제조업체의 가격 인상이 완료됐다.

또 대상은 지난 18일 장류와 조미료 등 주요 7가지 품목 가격을 평균 8.4% 올렸다. 장류 4~9%, 조미료 7~

9%, 양념장 10%, 소스류 8.5%, 식초 9%, 당류 9.7%, 식용유 12% 인상 등이다.

국산당은 다음 달 1일부터 백세주 가격을 6~7% 올리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롯데주류가 소주 출고가를 8.8%, 위스키를 5.6% 인상했다.

과자값도 오른다. 프림글스는 기업형수퍼마켓(SSM) 등에 공급하는 감자칩 값을 25일부터 평균 10%가량 인상한다.

김치 값 인상도 현실화됐다. 업계 1위 대상F&F의 종갓집은 지난 14일을 전후해 대형마트 등에서 포기김치 등

김치 50여 개 품목 가격을 평균 7.6% 올렸다.

풀무원이 이미 유통업체에 김치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태. 현재 인상폭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7%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의 경우 10% 안팎의 인상안을 두고 시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마무리 한 가운데 아직 올리지 못한 제품을 중심으로 막바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허창수 전경련 회장 연임...재추대 수락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이 연임한다.

전경련은 18일 허 회장이 회장단의 재추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회장을 맡은 허 회장은 이로써 다시 한번 '전경련호'를 이끌게 됐다. 허 회장은 이승철 전무를 차기 상근부회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도,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을 거쳐 2007년 4월부터 전경련 전무를 맡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플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허 회장단을 선임한다. /연합뉴스

중소 10곳중 2곳 "연내 한계상황" 300개사 조사...65% "별다른 대응책 없다"

국내 중소 제조업체 10곳중 2곳은 올해 안에 경영 상황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소 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3%가 이러한 대답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이후 한계상황이 올 수 있다는 기업도 15.0%였다.

'아직 한계 상황은 아니다'라는 응답은 25.7%였다.

최근 겪는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매출 부진'(29.0%), '자금 사정'(25.0%), '수익성 악화'(18.7%), '인력난'(14.0%), '대외

여건 불안'(13.3%) 등을 꼽았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의 대책에 대해 65.5%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고 했다.

'경기 회복기를 대비해 공격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기업은 22.7%,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는 11.7%였다.

경영예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자금 지원'(39.7%), '관료개혁 지원'(24.3%), '규제 애로 해소'(15.0%), '인력확보 지원'(10.7%), '연구개발 지원'(10.3%)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작년 조선 수주잔량 10년만에 최저

5년 연속 감소세

작년도 조선 수주잔량이 10년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5년 연속 감소세다.

세계 조선시장은 상선 발주시장 부진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예프앤가이드와 한국조선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작년도 국내 대형 조선사 9곳의 수주잔량은 28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2002년(2700만CGT) 이후 10년 만에 가장 작았다.

수주잔량은 2002년 3000만CGT를 밑돌다가 꾸준히 증가해 2007년 6400만CGT로 커졌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닥치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 여파로 2008년 5400만CGT,



이들 수치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신아에스비, 대진조선 등 9곳 기준이다.

조선시장 부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토러스투자증권이 수주잔량 상위 세계 19개 조선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인도량 대비 2015년 이후 인도량이 25% 이하로 줄어드는 조선소가 12곳이나 됐다. 나머지 378개 조선소의 2015년 이후 인도량은 올해 대비 7.3%까지 급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실적도 회복돼 현대중공업의 올해 순이익 전망치는 1조1834억원으로 작년(1조3849억원)보다 1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고 삼성중공업은 8747억원으로 작년(7964억원)보다 9.8% 증가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 30% 돌파

삼성전자의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이 작년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가 19일 발표한 2012년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집계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의 작년 스마트폰 점유율은 30.4%였다. 삼성전자가 연간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에서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50평 이상 저가 중대형 임대주택 중부세 면제

정부가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중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중부세를 부과하는 매

입 임대주택의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는 149㎡(약 50평) 이하인 소형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부세를 내지 않지만, 149㎡를 초과하면 중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로 규정된 주택가격 요건은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50평 이상의

중·대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도 주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중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정부는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2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85.83 (+3.92)	▲ 코스닥지수 522.49 (+3.97)	▼ 금리 (국고채 3년) 2.69% (-0.02)	▼ 원·달러 환율 1081.20원 (-0.90)
----------------------------	---------------------------	--------------------------------	-------------------------------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접수

조달청이 19일부터 4월30일까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번에 접수하는 자가품질보증 대상물품은 대량 조달물자 중 조달청 또는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 검사를 실시하는 가구제품, 콘크리트제품, 조명제품, 가전제품 등 421개 품명이

다.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신청 업무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처리했으나 올해부터는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지정공고, 자가진단, 신청, 심사, 업체지정,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 K9 고객 운전기사 제공

기아자동차는 19일부터 대형 세단인 K9의 모든 멤버십 고객에게 3년간 총 3차례에 걸쳐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K9멤버십 고객들이 기념일, 업무 등 필요에 따라 운전기사를 신청하면 하루동안의 운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차별화된 혜택이다. 단 1일 기준, 운

행시간 8시간 이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큐블레스 콜센터(1566-5854)에서 최소 3일 전 예약을 해야 한다.

기아차는 운전기사들에게 의견을 위한 서비스마인드·운전·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유니폼도 갖춰 입도록 할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완료!

2차조합원 150세대 모집중!!

믿을 수 있는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안전한 자금관리

한국자산신용

고객역 단차배치 실속형 설계

교통,학군 생활,자연적인 요충지

77㎡-123세대
84㎡ A-154세대
84㎡ B-250세대

총 527세대

모집/문의 **1899-1334**

·시행사: 백운동지역주택조합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자금관리: 한국자산신용(주) ·업무대행: (주)지호산업개발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예쁜글씨 POP & 폼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여성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www.kwangshin.ac.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